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모든 은혜의 하나님 [사사기 10]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2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4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르더라 5 야일이 죽으매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8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11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17 그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18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라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사사기 10장: 책의 중간입니다. 타락의 깊이도 절반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엄청난 은혜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본문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멸망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입니다. **1-5절 축복의 때** 돌라와 야일의 치하에서 45년 동안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두 재판관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심지어 번영하고 풍성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6-9절 죄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일곱 이방 신들이 언급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악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을 섬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되 그분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지 않는 삶. 이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1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12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레미야 2:11-13) 교훈: 언제 마귀가 약속된 것을 지킨 적이 있었습니까? 신에 관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단지 물을 담을 수 없는 터진 웅덩이들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14) 그분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불성실함에 대해 앙심을 품으시거나 보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사랑으로 질투하십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넘겨주

셨습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설교본문 10-14절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르짖음을 전에도 동일하게 들으셨습니다. 미안하다는 말과 우리의 방식을 바꾸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이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까? 진정한 회개에는 생각의 변화, 의지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오늘 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편의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다가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것 따위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옷을 입은 이교도들입니다.

설교본문 15-16절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에서 돌아섭니다.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제대로 회개했습니다! 그들의 이방 신들을 제거하고 자신들을 언약의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15 ...당신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 (사사기 10:15). **하나님 없이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습니까? 헤아릴 수 없는 은혜가 담긴 복음 구절 “16...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사사기 10:16b). 이것은 사사기에서 가장 강력한 문장 중 하나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9절은 “그들의 모든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도 괴로워하셨으니....”(NIV84)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그분의 영혼은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인해 인내의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일로 인해 그의 마음은 불안해졌습니다. 형벌을 가져온 마음과 동일한 사랑, 이제는 하나님께서 연민과 긍휼의 은혜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구원은 인색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표현인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긍휼은 이스라엘의 회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16절은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의 회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비참함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으로 인해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은 그분에게 소중하며, 고통이 마땅한 경우에도 이것은 여전히 그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회개의 진실성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에 있습니다!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16a) 가 항상 최우선입니다!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불쌍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의 진리는 결코 그분의 열정, 그분의 감정 그리고 그분이 택하신 사람들에 대한 그분의 감정의 깊이를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그 가장 궁극적인 희생 속에서도 아버지께서 고통 없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들을 짓밟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사랑받는 독생자를 무관심하게 저주하시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쳤을 때 아버지께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마무리하기에 가장 좋은 메모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강하게 느낀다면, 계속되는 죄책감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을 짓누른다면,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은혜를 찾으십시오! 이것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동일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엄격하지도, 무자비하지도 않으시며, 단지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랑과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불순종과 거절 그리고 거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오십니다. 계속해서 또 다시 돌아오십니다. “30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30).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